No 9005
서로가 마주보며 다
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
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.
저희 두 사람이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
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바른부 의 장남 바른
바른모
사랑부 의 장녀 사랑
사랑모
•일 시 : 2000년 2월 8일 (일요일) 오후 3시
•장 소 : 바른손프라자 (1층 다이아몬드룸)
DHgate.com
First Trading Marketplace